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문항붙임번호	13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세계사, 세계지리, 통합사회,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세계화, 빈부 격차, 인구 이동, 전통문화 소멸 위기, 이민자와의 갈등
예상 소요 시간	80분	

- ①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붐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찻잔 찻잔 찻잔 찻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 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찻잔 찻잔 찻잔 찻잔,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 ② “좀 비싼데요.”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삼 실링 육 펜스요?”
 옆에 있던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예, 나리.”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삼 실링 육 펜스라!”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살레 풍의 역사 지붕이 움직였다. 기차를 따라 달리는 원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가팔라졌다. 물건값이 똑 떨어지고 있었다. 나무 조각상 얼굴들이 마지막으로 승객들의 구매 의향을 묻는 듯 차창 너머로 튀어 올랐다 사라졌다.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세요, 나리!”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한 남자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한 늙은 원주민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흑인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개들도 떠나는 기차를 배웅하듯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토담집의 한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았고 역장은 서서히 살레 지붕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뭐가. 도대체 왜 그래?”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뜬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난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육 펜스에 말이죠.”

여자는 사자상을 남편에게 떠다밀었다.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구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 ③ 선의지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려는 의지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위를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라고 부르면서,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와 구분하였다. 우리는 동정심이나 연민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나, 장기적 이익과 같은 유용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 행위들이 선의지에서 비롯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의무이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 행위는 지극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 즉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학생은 봉사 활동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그 일을

하고, 다른 학생은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그 일을 한다. 칸트에 따르면, 앞의 학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므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를 했음에도 도덕적이지 않다. 반면에 뒤의 학생은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 ④ 스포츠 스타 ○○○과 가수 △△, 한류스타 □□□와 가수 ◇◇, 월드 스타 ☆☆☆과 배우 ×××. 이들의 공통점은 24시간 자신들을 겨누는 카메라에 연애 현장을 들켰다는 것이다. 이들을 따라다니는 기자를 우리는 '파파라치(paparazzi)'라고 부른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에서 시작돼 타이완과 홍콩 등 중화권을 거쳐 몇 년 전 국내에도 상륙한 파파라치 언론은 어느새 뉴스를 공급하는 사이트들의 '후원'에 힘입어 연예계에서 무시하지 못할 힘을 과시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뉴스에 대중이 열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스타들의 연애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 간의 사적인 영역인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도 입수해 공개해 버리기도 한다. 이것도 역시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 파파라치 언론의 '특종'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스타들은 괴로워진다. 스타들은 가뜰이나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사적인 영역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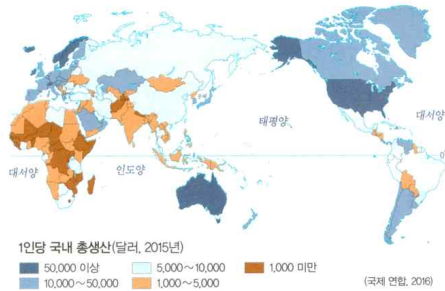
- ⑤ 이슬람 상인은 8세기 무렵부터 동서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후 이슬람교가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지면서 이슬람 세계는 하나의 무역망을 이루었다. 이슬람 상인은 중국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연결하는 비단길을 따라 낙타나 말 등을 타고 물자를 운반하였다. 바닷길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교역권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여러 지역의 물자가 서로 교환되었고, 문화와 사상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바그다드는 도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원형 도시로 성 안에는 칼리프의 궁전, 왕족과 고급 관료의 집, 모스크 및 관청 등이 있었다. 도시를 둘러싼 원형의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었고, 각 문은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었다. 바그다드는 당의 장안,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와 함께 10세기 무렵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길목에 있어 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등지에서 몰려드는 물자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스탄불이 동서 무역으로 번성한 사실은 그랜드 바자르(시장)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곳에는 4,000개 이상의 상점과 2,000개 이상의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 그랜드 바자르에서는 인도산 캐시미어, 프랑스산 향수, 페르시아산 양탄자, 중국산 도자기, 아프리카산 황금 등이 거래되었다. 그리고 이곳을 왕래한 상인들을 통해 오렌지, 레몬, 커피, 설탕, 면화 등과 그 재배법이 유럽에 소개되었다.

2. 문항 및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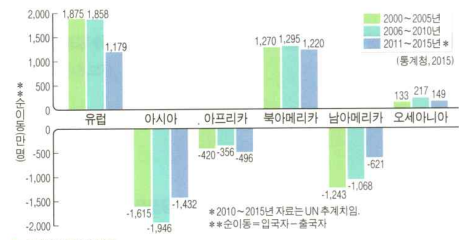
【문제 1】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나타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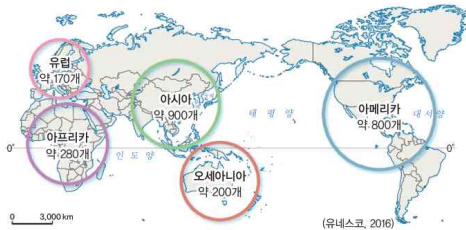
【그림1】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림2】 대륙별 인구 이동 변화



【그림3】 대륙별 사멸 위기 언어 수



【그림4】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여성가족부, 2016.]

구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스웨덴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	60.4	50.5	41.5	14.5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31.8	13.7	21.5	3.5
*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한다.	55.3	69.1	62.3	82.0

*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국제 지표 항목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자유 시장에서의 거래는 '최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되지만, 여기서의 이익은 쌍방을 위한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적 사례를 인용하면, 빵집과 정육점 주인은 손님의 돈과 교환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한다. 스미스도 지적했듯이 이 관계는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돈이 필요해서 빵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가 형성되면 서로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 거래가 처음부터 반드시 양쪽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과 수요라는 현실 위에서 거래가 형성되므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유 시장 경제는 이런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격자무늬 구조이다. 각각의 무늬들이 연합하여 애덤 스미스가 지칭한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지고 모든 자원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기능할까? 이것이 자유 시장의 기적이다. 자유 시장은 자연 발생적이다. 어떤 관료도 타인의 욕구나 그 충족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다. 수많은 개인들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할 방법을 찾는다. 사람들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세탁기 등 혁신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만든다. 이를 통해 자본과 혁신이 형성되고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번영을 이룬다.